



남원자봉센터, '우리들의 라디오스타' 행사 진행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마련한 '우리들의 라디오스타' 현장에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따뜻한 자연과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13일에는 원불교 교당에서 원광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 아동·가족과 함께 첫 만남 후, 19일에는 도통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솔지역아동센터 아동·가족과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두 차례 행사에는 총 13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들의 라디오스타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미리 보내온 감사와 응원, 격려의 사연을 DJ가 소개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됐다. 평소에는 속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사연을 통해 전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천완주고속도로 사고 현장서 '모세의 기적' 감동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주 주말 고속도로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양보 운전으로 소방대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해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며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 현장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6분경,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방면 상행선(북남원IC 인근)으로, 차량 2대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고를 접수한 남원소방서는 즉시 금지구급대를 선착대로 비롯해 식정구조대, 금지펌프차, 수지구급대 등 소방력과 대원들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하지만 사고 지점 전방 도로가 꽉 막혀 자칫 현장 도착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소방 구급차의 사이렌에 도로 위 차들이 신호라도 맞춘 듯 일제히 좌·우측 가장자리로 갈라서기 시작,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히 통과하도록 시민들이 스스로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양보 덕분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량 2대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경상을 입은 환자 2명을 안전 구조해 남원의료원으로 즉시 이송했다.

이날 금지펌프차 운전을 담당했던 이영란 소방장(반장)은 "꽤 막힌 현장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도로 위에서 모세의 기적을 만들어 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동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광활농협, 조합원 대상 건강강좌 실시

광활농협(조합장 임영웅)은 지난 11일과 1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주제로 2회의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는 전주 우리병원 시대봉 행정원장이 강사로 참여했고 짧은 1시간이지만 조합원 120여명이 즐겁고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시대봉 행정원장은 "점점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는 과정에 농촌에서 건강강좌와 시간이 부족한데 광활농협에서 강의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알기쉬운 설명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공고 윈드 오케스트라,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 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 작년 고등부 대상 이어 2년 연속 정상 패거

전주공업고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가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전체 대상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수상의 패거를 거뒀다.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오홍학)는 재학생으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가 지난 13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전체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공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대회에서 고등부 대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전체 대상까지 차지하며 관악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46년 창단된 전주공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현재 1학년 11명, 2학년 22명, 3학년 8명 등 모두 41명의 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공고 윈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곡은 'Flight'다. '비행'을 뜻하는 제목처럼 이 곡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가 순탄한 순간뿐 아니라 변화와 긴장, 난기류를 헤쳐가며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연습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변수들을 겪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연주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방학 기간에도 집중적인 합주와 파트별 연습을



이어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맞추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41명의 학생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학생들과 지도자가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한 점도 이번 수상의 원동력이 됐다.

김민수 지휘자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했지만 그때마다 서로를 믿고 완벽한 연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소리를 믿으며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낸 과정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지속적인 지원도 학생들에게 힘이 됐다. 오홍학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동창회, 관악 동문회 등 학교 안팎의 관심과 응원이 학생들이 음악에 집중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한편 전주공고 윈드 오케스트라는 오는 12월 16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6 전북 지역 특성학교 합동연주회'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전북소방교육훈련센터 교육참여

고창소방서는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양승문, 박성희) 지난 18일, 전북교육훈련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대산남성의용소방대장 이법석, 상하여성의용소방대장 장미라 대장이었으면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진압장비 사용법, 기본 응급처치 방법 등 의용소방대원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앞선 7월에도 고창여성의용소방대장 박성희, 공음여성의용소방대장 김유미 대장 등 지속적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역량 강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수군 계남면에 소재한 전북소방교육훈련센터는 도내 유일의 소방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민간 자체소방대, 의용소방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태인농협, 전통 식문화 알리는 스마트팜 체험

지역 주민이 함께 전통문화 체험과 스마트팜을 체험하는 행사가 최근,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중) 스마트팜 체험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전통 장류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스마트팜과 지역 농가 수매 고추를 연계해 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태인을 양과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춧가루 가공공장 견학, 스마트팜 체험 및 고추장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신태인농협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서 만든 단품 고춧가루를 이용한 고추장 만들기 체험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재료를 섞어 고추장을 만드는 과정에 높은 흥미를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 ‘찾아가는 낭만보이스 성우씨어터’ 26일 개최

명작 더빙쇼 · 낭독극 · 라이브 공연 등 ‘풍성’

장수군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찾아가는 낭만보이스 성우씨어터’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군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성우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공연은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해 온 대표 성우들의 생생한 목소리 연기와 라이브 무대를 결합한 복합 문화예술 공연으로 꾸며진다.

총 13명의 성우가 출연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화 '로마의 휴일' 더빙쇼를 비롯해 한국 설화 '절벽화'와 외국 신화 '배두사'를 소재로 제작한 창작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더빙쇼, 희곡 '맹진사댁 경사' 낭독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영화 주제곡과 트로트 라이브쇼도 함께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와 색다른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8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